

##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해부학 실습 교육에 미치는 영향: 교육적 효과 및 졸업성과 분석

이경민<sup>1</sup>, 장경주<sup>1</sup>, 배재훈<sup>1</sup>, 이현수<sup>2</sup>, 이재호<sup>1</sup>

<sup>1</sup>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sup>2</sup>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The Impact of Medical School Enrollment Expansion on Anatomy Practical Education: An Analysis of Educational Effects and Learning Outcomes

Gyeong-Min Lee<sup>1</sup>, Kyung-Ju Jang<sup>1</sup>, Jae-Hoon Bae<sup>1</sup>, Hyunsu Lee<sup>2</sup>, Jae-Ho Lee<sup>1</sup>

<sup>1</sup>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Physiology, School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Anatomy practicals play a crucial role in shaping the humanistic qualities and ethical responsibility of medical professionals, while simultaneously educating students in basic medical knowledge and medical humanities. However, current anatomy practicals face several structural challenges, including difficulties in cadaver procurement, a shortage of faculty and support staff, and inadequate practical environments. These issues are at risk of becoming more severe with the expansion of medical school enrollment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learning outcomes and educational effects of anatomy practicals through a 5-point scale, and to evaluate the impact of expanded medical school enrollment on anatomy practical education.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st response rates for learning outcomes achieved through anatomy practicals were in professionalism (29.2%) and problem-solving and research (25.7%), followed by clinical performance (14.2%) and communication skills (12.8%). Second, the educational effects of anatomy practicals were positively evaluated in several areas, including anatomical knowledge acquisition, attitude towards respect for life, teamwork, and creativity. Specifically, respect for life scored the highest with an average of 4.80. In contrast, empathy ability received a relatively lower score of 3.98. Third, students' perceptions of the impact of expanded medical school enrollments on anatomy practical education were largely negative. Most students expressed concern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in anatomical knowledge acquisition would deteriorate, with similar concerns raised regarding other aspects such as respect for life, communication skills, and teamwork.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xcessive expansion of enrollments may degrade the quality of medical education, including anatomy practical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dequate infrastructure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to sustain the quality of medical education.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more comprehensive analysis across various regions and target groups.

**Keywords** : Anatomy practice, Medical school enrollment expansion, Educational effects, Learning outcomes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March 4, 2025; **Revised:** March 18, 2025;

**Accepted:** March 24, 2025

**Correspondence to:** 이재호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E-mail:** anato82@dsmc.or.kr

© 2025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2671-566X (Online)

## 서론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의료현장은 진료 상태와 의료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의료 이슈가 사회적으로 회자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실의 응급환자 수용 한계로 인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계속해서 떠도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저출산으로 소아 인구의 감소와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일부 소아청소년과에는 환자들이 몰려 병원 개원 시간에 맞춰 긴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1].

2023년 OECD 보건의료통계(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또한,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5회로 가장 빈번하다.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0회를 넘는 국가는 일본(11.1회)과 슬로바키아(11.0회)가 유일하다. 반면, 우리나라 임상의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미국(2.7명), 일본(2.6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2]. 정부는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의료 인력 부족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는 의료계와 정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장기적인 의료 서비스의 품질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3].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입장 차이는 1년이 넘도록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의학교육은 역량바탕의학교육(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CBME)을 중심으로, 임상 역량뿐만 아니라 윤리, 의사소통, 전문직업성, 연구 등 비임상적 역량까지 함양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성 구현에 중점을 둔다[4]. 이러한 교육적 접근 속에서 해부학 실습은 단순히 해부학적 지식 습득을 넘어, 의료인의 인간 중심적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부학 실습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협업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며[5],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6]. 이는 단순한 의학적 지식 전달을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인간적 소양과 윤리적 책임감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경험이 된다. 특히, 해부학 실습은 학생들에게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의료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감을 심어주며,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결

정적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부학 실습은 시신 확보의 어려움, 기초의학 교수진 및 지원인력의 부족, 실습환경의 미비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7]. 이러한 상황에서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미래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 제대로 함양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8]. 해부학 실습은 의료인문학적 가치와 임상 역량을 동시에 기르는 중요한 과정으로, 그 교육의 질이 의료인의 인간적 소양과 윤리적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의과대학 정원의 확대와 그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과 해결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해부학 실습 교육의 질적 변화를 분석하고, 그로 인한 의료인의 역량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부학 실습 교육이 학생들의 해부학적 지식뿐 아니라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윤리적 성찰을 포함한 인간 중심적 가치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해부학 실습 및 전반적인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25년 K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실습 교육에 참여한 의예과 2학년에서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해당 의과대학은 약 80여 명에서 약 120여 명의 정원이 증원되었다. 현재 설문에 참여 가능한 326명의 학생 중 응답자는 총 109명(33.4%)이었다. 학년별 응답자는 의예과 2학년 17명(15.6%), 의학과 1학년 31명(28.4%), 의학과 2학년 9명(8.3%), 의학과 3학년 30명(27.5%), 의학과 4학년 22명(20.2%)이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G사의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학년, 해부학 실습을 통한 졸업성과, 현재 해부학 실습의 교육적 효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이후 예상되는 해부학 실습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유형은 단일응답식과 다중응답식이며 다중응답식 문항의 경우, 본 대학의 6가지 졸업성과(진료, 의사소통, 환자지지, 프로페셔널리즘, 문제해결과 연구, 자기개발) 중 해부학 실습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최대 3개까지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부학 실습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단일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하여,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매우 그렇지 않다(1)’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version 23.0 (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항별 전체 평균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학년별 문항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 및 Stu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도는  $p < 0.05$  수준에서 양측검정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1. 해부학 실습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졸업성과

해부학 실습 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졸업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Fig. 1). 이 문항은 응답자가 최대 3개까지 복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료, 의사소통, 환자지지, 프로페셔널리즘, 문제해결과 연구, 자기개발의 졸업성과 중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이 총 84명(29.2%)으로 성과 달성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꼽혔고, 문제해결과 연구(Problem Solving and Research)가 74명(25.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진료(Clinical Performance) 41명(14.2%), 의사소통(Communication) 37명(12.8%)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발(Self-Development) 29명(10.1%), 환자지지(Supporting Patients) 23명(8.0%)으로 해부학 실습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2. 해부학 실습의 교육적 효과 분석

해부학 실습이 의학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해부학적 지식 습득, 생명 존중,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리더십, 창의성 및 탐구성, 공감 능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부학적 지식 습득에 대해 응답자의 75.2%인 82명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으며, 22.0%인 24명은 ‘그렇다’, 2.8%인 3명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해부학 실습을 통한 해부학적 지식 습득은 5점 척도에서 평균  $4.72 \pm 0.50$ 으로 나타났다. 생명 존중 태도에서는 81.7%인 89명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16.5%인 18명은 ‘그렇다’, 1.8%인 2명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평균은  $4.80 \pm 0.44$ 로, 7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의사소통 능력은 43.1%인 47명이 ‘그렇다’, 34.0%인 37명이 ‘매우 그렇다’, 21.1%인 23명이 ‘보통이다’, 1.8%인 2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평균은  $4.09 \pm 0.78$ 이었다. 협동심 함양에 대해선 55.0%인 60명이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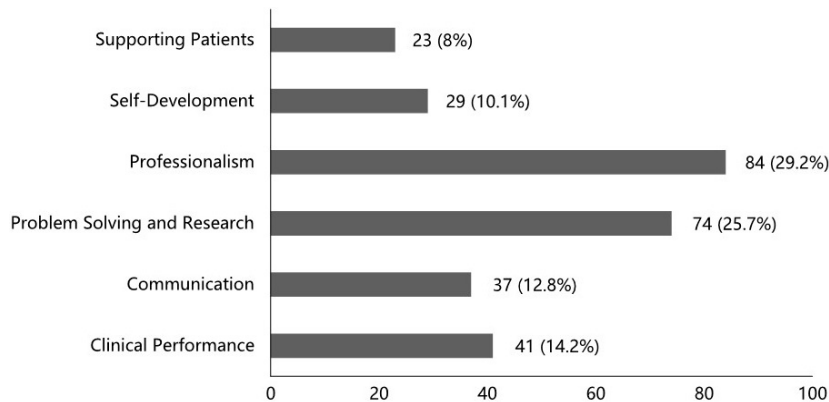


Fig. 1. The respondents (N = 288) selected multiple graduation competencies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cadaver dissection.

Table 1. The educational effects of cadaver dissection

N (%), N = 109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Total
Anatomical knowledge	82 (75.2)	24 (22.0)	3 (2.8)	0 (0)	0 (0)	$4.72 \pm 0.50$
Respect for life	89 (81.7)	18 (16.5)	2 (1.8)	0 (0)	0 (0)	$4.80 \pm 0.44$
Communication skills	37 (34.0)	47 (43.1)	23 (21.1)	2 (1.8)	0 (0)	$4.09 \pm 0.78$
Collaboration	60 (55.0)	38 (34.9)	9 (8.3)	2 (1.8)	0 (0)	$4.43 \pm 0.72$
Leadership	34 (31.2)	48 (44.0)	26 (23.9)	1 (0.9)	0 (0)	$4.06 \pm 0.76$
Creativity	47 (43.1)	40 (36.7)	16 (14.7)	6 (5.5)	0 (0)	$4.17 \pm 0.88$
Empathy	40 (36.7)	32 (29.4)	32 (29.4)	5 (4.6)	0 (0)	$3.98 \pm 0.92$

34.9%인 38명이 ‘그렇다’, 8.3%인 9명이 ‘보통이다’, 1.8%인 2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평균은 4.43 ± 0.72로 나타났다.

리더십 함양에 대한 응답에서 평균은 4.06 ± 0.76이었으며, 44.0%인 48명이 ‘그렇다’, 31.2%인 34명이 ‘매우 그렇다’, 23.9%인 26명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0.9%인 1명이었다. 창의성 및 탐구성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4.17 ± 0.88로, 43.1%인 47명이 ‘매우 그렇다’, 36.7%인 40명이 ‘그렇다’, 14.7%인 16명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5.5%인 6명이었다. 공감 능력의 평균은 3.98 ± 0.92로, 모든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매우 그렇다’는 36.7%인 40명이었으며, ‘그렇다’와 ‘보통이다’는 각각 29.4%인 32명으로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4.6%인 5명이었다.

### 3.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해부학 실습에 미치는 영향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해부학 실습 교육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해부학적 지식 습득에 대해서는 ‘열악해질 것이다’ 53명(48.6%), ‘매우 열악해질 것이다’ 52명(47.7%)으로 가장 많았고, ‘비슷할 것이다’ 3명(2.8%), ‘보다 좋아질 것이다’는 1명(0.9%)이었다. 전체 평균은 1.57 ± 0.60으로, 대체로 해부학 실습 교육이 매우 열악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생명 존중 태도에 대해서는 ‘비슷할 것이다’ 40명(36.7%), ‘열악해질 것이다’ 36명(33.0%), ‘매우 열악해질 것이다’ 33명(30.3%) 순으로 응답이 분포했으며, 전체 평균은 2.06 ± 0.82였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응답은 ‘열악해질 것이다’ 48명(44.0%), ‘매우 열악해질 것이다’ 38명(34.9%), ‘비슷할 것이다’ 21명(19.3%), ‘보다 좋아질 것이다’ 2명(1.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1.88 ± 0.77이었다.

협동심에 대해서는 ‘열악해질 것이다’ 56명(51.4%), ‘매

우 열악해질 것이다’ 34명(31.2%), ‘비슷할 것이다’ 16명(14.7%), ‘보다 좋아질 것이다’ 2명(1.8%) 순으로 응답이 분포하였다. 또한, ‘매우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1명(0.9%)이었다. 전체 평균은 1.90 ± 0.78이었다.

리더십에 대한 응답에서 전체 평균은 2.25 ± 0.89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열악해질 것이다’ 42명(38.5%), ‘매우 열악해질 것이다’ 24명(22.0%), ‘비슷할 것이다’ 36명(33.0%), ‘보다 좋아질 것이다’ 6명(5.5%), ‘매우 좋아질 것이다’ 1명(0.9%) 순으로 나타났다. 창의성 및 탐구성 변화에 대한 응답의 전체 평균은 1.85 ± 0.73이었다. ‘열악해질 것이다’ 49명(45.0%), ‘매우 열악해질 것이다’ 38명(34.9%), ‘비슷할 것이다’ 22명(20.2%)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감 능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응답은 전체 평균 2.16 ± 0.83으로, ‘비슷할 것이다’ 47명(43.1%), ‘열악해질 것이다’ 32명(29.4%), ‘매우 열악해질 것이다’ 30명(27.5%)으로 나타났다.

## 고찰

본 연구는 해부학 실습이 의학교육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해부학 실습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부학 실습은 의학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졸업성공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해부학 실습의 교육적 효과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해 제기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있어 대표적인 부분으로 예상되는 해부학 실습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효과적인 실습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해부학 실습이 해부학을 바탕으로 한 임상 역량뿐 아니라 비임상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정원 확대 시 이러한 교육목표가 성취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며, 이는 대학과 교수자 모두 이

**Table 2.** The expected educational effects of cadaver dissection following the 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s N(%, N = 109)

	Much better	Somewhat better	Stayed the same	Somewhat worse	Much worse	Total
Anatomical knowledge	0 (0)	1 (0.9)	3 (2.8)	53 (48.6)	52 (47.7)	1.57 ± 0.60
Respect for life	0 (0)	0 (0)	40 (36.7)	36 (33.0)	33 (30.3)	2.06 ± 0.82
Communication skills	0 (0)	2 (1.8)	21 (19.3)	48 (44.0)	38 (34.9)	1.88 ± 0.77
Collaboration	1 (0.9)	2 (1.8)	16 (14.7)	56 (51.4)	34 (31.2)	1.90 ± 0.78
Leadership	1 (0.9)	6 (5.5)	36 (33.0)	42 (38.5)	24 (22.0)	2.25 ± 0.89
Creativity	0 (0)	0 (0)	22 (20.2)	49 (45.0)	38 (34.9)	1.85 ± 0.73
Empathy	0 (0)	0 (0)	47 (43.1)	32 (29.4)	30 (27.5)	2.16 ± 0.83

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해부학 실습을 통한 졸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프로페셔널리즘과 문제해결과 연구 능력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해부학 실습이 단순한 해부학적 구조 학습을 넘어, 실제 임상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 역량과 의료인의 태도를 함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해부학 실습을 통해 다양한 인체 구조를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임상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은 의사가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뛰어넘어, 환자, 동료 의료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을 포함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학생들은 의사라는 전문가로서 기술적인 프로페셔널리즘의 정의를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자지지 및 자기개발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부학 실습이 직접적인 환자 대면과는 거리가 있고, 팀워크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해부학 실습 시 균형 잡힌 졸업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적 사고와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해부학 실습은 생명존중과 해부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체 모형이나 그림 등의 자료보다 직접 구조물을 관찰하고 손으로 확인하는 것이 해부학 학습에 더 효과적이며,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7]. 반면, 공감 능력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부학 실습이 환자의 정서적 상태를 직접 경험하는 임상 실습과 차이가 있고, 주로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 중심으로 진행되어 기증자의 삶을 깊이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부학 교육 내 기증자 편지 프로젝트(Donor Letter Project) 도입[6]이나 문학 소설 활용 등의 교육적 접근[9]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요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해부학 실습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학생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특히 해부학적 지식 습득, 창의성 및 탐구성,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졌으며, 협동심도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학생 수 증가로 인해 해부실습당 참여 인원이 늘어나면서 개별실습의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교수진 및 지원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공감과 생명존중,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기존과 유사한 교육적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해부학 실습의 교육적 효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해부학 실습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수진과 해부기사 등의 보조 인력, 실습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8]. 또한, 효율적인 교수법과 기술의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신 기술인 가상 해부학 실습이나 3D 모델링을 통해 실습의 질을 높이고,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으며,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의료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윤리적이고 인도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각 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피드백이나 맞춤형 교육이 어려워지고, 해부학 실습과 같은 섬세한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경험을 얻지 못할 수 있다.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의학적 능력을 키울 기회가 제한되면, 나아가 환자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신뢰를 쌓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교육의 질 저하는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의학교육은 기술적 지식만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중, 윤리적 사고 등 학생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급격한 증원은 이러한 중요한 교육적 요소가 흐려질 위험이 크다. 인체 기증자에 대한 존경과 생명윤리적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교육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은 기증자의 소중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개 한 대학의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증원규모가 각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 또한 다양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많은 대학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는 학생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므로 실제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주로 학생들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해부학 실습에 참여하는 교수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도 함께 고려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향후 의과대학 교육 정책에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해부학 실습의 지식습득 외 인성이나 인문학적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10,11], 증원에 따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의과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대학과 사회가 목표로 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지, 양적인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다. 무리한 정원 확대는 장기적으로 해부학 실습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의과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의학 분야의 전문성과 윤리적 수준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의과대학을 포함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의과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S

1. Mun SK. Do we really need more medical schools or doctors in Korea?. *Korean J Med.* 2024;99:1-3.
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3 [Internet]. Paris, FR: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2023 [cited 2025 February 19]. Available from: <https://stats.oecd.org/>.
3. Park EC. Suggestions on expanding admission number of medical school.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024;34:120-8.
4. Ahn DS. Educational considerations for expanding medical school admissions. *Healthcare Policy Forum.* 2024;21:37-42.
5. Lee JK, Kim HT, Yoo HH. Changes in the perception structure of the concept of empathy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medical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2022;17:31-6.
6. Lee HS, Lee JH. The value of anatomy in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for future talents. *Anat Biol Anthropol.* 2023;36:37-42.
7. Yoo HH, Song CH, Han EH, Kim HT. The effect of education program of cadaver dissection for the paramedical students. *Koran J Phys Anthropol.* 2014;27:145-54.
8.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The Impact of Medical School Expansion on Medical Education [Internet]. Seoul, KR: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c2024 [cited 2025 February 27]. Available from: <https://kams.or.kr/webzine/24vol159/>.
9. Jeremy G, Lauren MB, Judy S, Darryl P, Kenn D, Ken R. Medical humanities coursework is associated with greater measured empathy in medical students. *Am J Med.* 2016;129:1334-7.
10. Hildebrandt S. The role of history and ethics of anatomy in medical education. *Anat Sci Educ.* 2019;12:425-31.
11. Ghosh SK. Cadaveric dissection as an educational tool for anatomical sciences in the 21st century. *Anat Sci Educ.* 2017;10:286-99.

**간추림** : 해부학 실습은 의료인의 인간적 소양과 윤리적 책임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기초 의학 지식과 함께 의료 인문학적 가치를 동시에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해부학 실습은 시신 확보의 어려움, 교수진 및 지원인력의 부족, 실습 환경의 미비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의과대학 정원의 확대에 따라 더욱 심화될 위험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부학 실습 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졸업성과와 그 교육적 효과를 5점 척도로 분석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해부학 실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첫째, 해부학 실습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졸업성과는 프로페셔널리즘(29.2%)과 문제해결과 연구(25.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진료(14.2%)와 의사소통(12.8%)이 뒤를 이었다. 둘째, 해부학 실습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부학적 지식 습득, 생명 존중 태도, 협동심, 창의성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생명 존중 태도는 평균 4.8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공감 능력은 평균 3.98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해부학 실습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특히 해부학적 지식 습득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생명 존중 태도,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등 다른 항목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리한 정원 확대가 해부학 실습을 포함한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와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대상을 포함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찾아보기 낱말** : 해부학 실습, 의과대학 정원 확대, 교육적 효과, 졸업성과